류현진의 13승 도전 '애매한 심판 판정 · 피홈런'에 무너져

애틀랜타전 5⅔이닝 6피안타 2피홈런 4실점…평균자책 1.45→1.64 상승

류현진(32·LA 다저스)의 13승 도전이 애매한 심판의 판정과 홈런 2방에 무너졌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컴벌랜드의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5⅔이닝 6피안타 2피홈런 5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1.45에서 1.64로 상승했다.

완봉승, 포스트시즌 승리 등 좋은 기억이 많았던 애틀랜타전이었지만 류현진은 심판의 볼 판정에 흔들리고 7경기 만에 피홈런도 허용, 이번 시즌 2번째로 많은 실점(6월29일 콜로라도전 7실점)을 했다. 포스트시즌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대였기에 부진은 더욱 아팠다.

류현진이 흔들린 것은 3회말이었다. 선두타자 아데이니 에체베리아를 상대해 신중한 승부를 펼치던 류현진은 2볼-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5구째 87.3마일의 낮은 커터를 던졌다. 공은 스트라이크존 하단에 살짝 걸친 것으로 보였지만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하지 않았다. 포수 러셀 마틴과 류현진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은 에체베리아와의 풀카운트 승부 끝에 8구째 87마일 커터를 던졌다. 이번에는 공이 높았고 결국 우중간 담장을 원바운드로 맞는 큼직한 2루타를 맞았다.

선두타자에게 장타를 맞은 류현진은 이후 1사 1, 3루 위기에 몰렸고 결국 아지 알비스에게 2타점 2루타를 허용해 2실점했다. 지난 2경기에 이어 15⅓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던 상승세도 깨졌다.

타선의 도움으로 2-2 동점이 됐지만 류현진은 6회말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조시 도날드슨에게 홈런을 맞았다. 4구째 92.4마일 포심 패스트볼이 높게 제구된 공은 도날드슨에게 강타를 당해 중앙 담장을 넘어갔다. 지난 6월말 콜로라도전 이후 7경기 만에 내준 홈런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류현진은 이어 타석에 들어선 아담 듀발에게도 솔로포를 맞았다. 시즌 12번째 피홈런.

류현진은 홈런 2개를 내주면서 6회말 2사 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결국 다저스는 3-4로 졌고 류현진은 시즌 3패(12승)째를 당했다.

뉴스1

아시안 요가스포츠챔피언십, 내달 5일 여수엑스포서 개최

우리나라 두번째 대회이자 첫 지방대회…4일간 열려

'2019 아시안 요가스포츠챔피언십(AYSC) & 컨퍼런스'가 9월5일부터 4일간 전남 여수시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AYSC는 매년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데,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번째 대회이자 첫 지방대회다.

아시아 14개국 요가 국가대표 선수단 300여명과 국내 요가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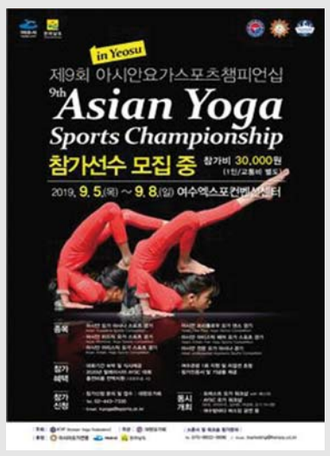
각국 선수들은 아사나 스포츠, 리드믹 요가, 아티스틱 요가 스포츠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 우승자들은 관람객에게 갈라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국내외 최고 요가 마스터들의 동작과 자세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인도 요가 대표단의 시연을 감상할 수 있고, 여수 밤바다 버스킹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결산

[편집자주]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광주에 모여 수영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 여름 광주에서는 실력의 차이도, 나이와 성별, 언어와 국가, 장애로 인한 차이도 없었다. 단지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4회에 걸쳐 결산한다.

장애 · 고령 극복한 '인간승리' 드라마

도전 · 극복 · 치유 그리고 우정… '한편의 드라마 모두가 주인공'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는 한 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이들이 '수영'을 매개로 광주에 모여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이, 수영여제의 37년 만의 복귀, 어느 입양아의 46년 만의 고국 방문, 93세 고령 참가자의 도전, 청각장애인의 도전, 91세 어르신의 노익장 등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자폐장애 1급인 이동현씨의 사연은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이씨는 1000여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한 장애인으로 참가해 경영 자유형 100m, 접영 50m, 접영 100m에 출전했다.

세계 각국의 비장애인들과 실력을 겨룬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동현씨는 "그들과 기록과 순위를 다투겠다는 것이 아니다. 함께 시합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당차게 도전했다.

자신의 삶보다 아들의 인생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 정순희씨(58)는 광주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참가 신청을 했다.

독일에서 참가한 청각장애인 골드베르그 필과 로빈 형제의 도전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출발신호를 들을 수 없어 광학 출발신호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다. 보청기 없이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지만 5~6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한때 장애인 수영 독일 대표도 했다.

형제는 "청각장애는 우리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빠른 수영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70년대 중후반 한국 신기록을 무려 32차례나 경신하며 한국 여자수영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최연숙씨(60)는 37년 만에 깜짝 복귀해 관심을 끌었다.

최씨는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어 더 큰 곳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꿈이 이뤄지지 않자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그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토록 그리던 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여러 이유로 내려놓았거나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확인해 찾아가는 대회였다"며 이번 대회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6살 때 독일로 입양을 갔다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무려 46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한 라인들 심 미리암(52)의 사연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태어난 나라에서의 역영은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특히 제 기록을 20초나 단축시켜 경기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며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 대회가 끝나면 독일에서 오기로 한 친구와 3주일 동안 한국의 곳곳을 다니며 여행을 즐기겠다"고 말해 고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감동은 고령의 참가자들이었다. 나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으로 박수를 받았다.

여자 자유형에 참가한 아마노 토시코(93·일본)는 대회 최고령자였다. 비록 빠르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지만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 완주했다.

아마노 할머니는 "다음 대회에도 계속 나갈 것"이라며 "100세까지는 출전하고 싶다"고 의욕을 불태워 도전의 의미를 일깨워줬다.

남자 최고령자 최다종목 출전자였던 불가리아에서 온 테네프 탄초(91)는 노익장의 정점이었다.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다이빙에 나서는 등 무려 11개 종목을 신청해 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내 삶의 욕망이 있다. 욕망이 없으면 목표에 다다를 수 없으며 삶 또한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했다"며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해 감동을 줬다.

뉴스1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폐장애 1급 이동현씨(29)가 자유형 100m에서 조 6명 중 3위를 기록한 후 어머니 정순희씨(58)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 수영 신기록을 32차례나 경신했던 신기록 제조기 최연숙씨(60)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출전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93세의 아마노 토시코가 13일 자유형 100m를 완주한 후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